

**미래 전장환경과
작전수행개념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비방향**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 전 종 순





미래 전장환경과 작전수행개념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비방향

전종순(21세기군사연구소 이사/책임연구위원)

I. 서 론

2012년 4월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고(通告)해 왔다.

“역적 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되는 것을 알린다. 우리의 특별행동은 노호한 민심과 분노의 폭발이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 군민의 성전이다. 추리 혁명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도발근원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발언을 “테러집단이나 할 수 있는 언동”이라고 일축하기에는 통고문의 행간에 숨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번 협박은 2010년의 무력도발(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유사성이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2010년 1월 16일 “청와대를 포함해 본거지를 향한 보복성전(報復聖戰)이 개시될 것”이라는 성명을 낸 후 69일 만에 천안함을 공격했고, 2010년 9월과 10월에도 대남(對南)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보복’ 성명을 두 차례 내더니 11월 26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을 가해왔다.

손자병법의 허실편(虛實篇) 第六에 의하면 전승불복 응형어무궁(戰勝不復, 應形於無窮)이라는 말이 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은 되풀이 되지 않으니 무궁한 형세에 내 모습을 바꾸어 적응하라는 말이다.¹⁾ 지금의 상황에서 이 말이 가장 우리에게 와 닿는 말이다. 북한의 통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홍원식 譯著, 「孫子兵法大全」, (서울: 일증사, 2000), p.235.

그들은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와 방법으로 도발을 자행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는 또 다시 기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즉, 이제는 천안함 피폭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의 형태가 아닌 또 다른 도발형태를 상상하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고문의 행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도발행위를 성전(聖戰, Jihad)로 미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최근의 이란·이라크 전쟁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그것을 그들의 전략·전술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미군이 걸프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만전쟁의 교훈'을 통해 갱도공사(진지요새화), 소부대를 이용하여 적의 뒤통수를 타격하는 적극적인 행동, 모의 유도무기기지, 모의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한 기만전술 등을 강화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라크 전쟁 후에는 '전시사업세척'을 통해 적화통일 전략을 '성전(聖戰)'으로 표현하며 군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자살폭탄테러 등을 통해 이 성전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군의 모습을 학습한 북한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전력에 대응하려 할 것이며 천안함 피폭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그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 또는 전쟁양상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군사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제기하였다. 즉, 린드(William S. Lind)와 햄즈(Thomas X. Hammes)의 제4세대전쟁, 루퍼트 스미스(Rupert Smith)의 민간전쟁(War amongst the People), 바우만(Robert F. Baumann)의 복합전쟁(Compound War), 호프만(Frank G. Hoffman)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등의 이론이 그것이다.

하이브리드전쟁은 냉전이 종식된 후 소련이라는 거대하고 명확한 위협이 사라진 대신 소규모이며 그 실체가 불명확한 위협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린드(William S. Lind)를 비롯한 몇몇 군사이론가들이 1980년대 말부터 주장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각광을 받았지만 전쟁의 세대구분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위협의 대상을 문화적·종교적 차원에서 고려하여 지나치게 비국가행위자와 초국가행위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개념이나 교리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 이후 2010 QDR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이 이론은 합동기본개념서 및 각 군의 교리에 반영되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전쟁이 정규전, 비정규전 등 분쟁의 모든 영역(spectrum)을 망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전쟁은 정규전, 비정규전, 테러, 범죄적 무질서 등 다양하고 상이한 형태의 전쟁이 동일한 전투공간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²⁾ 따라서 이러한 전쟁에서의 위협은 정규적·비정규적·재앙적·파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이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얻는 것이 전쟁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반론 역시 의미가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북한의 통고문에 나타난 것처럼 위협의 대상, 수단 그리고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논문은 금번 세미나의 주제인 하이브리드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본고는 먼저, 북한이 걸프전과 이라크전쟁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한 ‘만전쟁의 교훈’과 ‘전시사업세칙’을 분석하여 미래 북한의 위협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위협을 토대로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쟁을 수행할 가능성과 역량이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대비방향은 합동전투발전요소별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한 미래란 용어는 문서체계에서 말하는 중기나 장기적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란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좀 더 먼 내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미래라는 Time Frame을 먼저 논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 닥친 현실적 미래보다는 너무 꿈에 부푼 현학적 미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기 위해서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Frank G. Hoffman, "Hybrid Warfare and Challenges," JFQ/issue 52, 1st quarter 2009, pp.35~36.

II. 북한이 걸프전·이라크전쟁으로부터 얻은 교훈

1. 만전쟁의 교훈

북한은 만(GULF) 전쟁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도출하고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갱도공사(진지 요새화), 소부대의 적극적인 공세 행동, 기만전술 숙달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³⁾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첫째, 갱도공사에 대한 강조

미국놈들의 전법을 연구하고 갱도공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 우리가 방어공사를 잘하여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면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도 우리의 방어를 뚫지 못합니다.

... 이라크군은 것처럼 전쟁력사상 류레없는 비행대의 폭격 속에서도 갱도와 지하은폐부를 비교적 잘 설비함으로써 인원 및 무기, 전투기술기재의 손실을 적게 받았다. 이라크군의 지하은폐부는 까또(들것)을 리용하여 모래판을 파낸 다음 거기에 50~60cm의 두께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넣고 그 위에 3~6cm의 두께를 덮은 것이었다. 이런 멀치(변변치) 않은 지하 은폐구였지만 40여 일간이나 지속되는 적의 대규모적인 폭격 속에서도 인원 및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손실이 적었다.

(갱도 설치 시 고려사항 지침) 갱도는 일반적으로 주요방향으로부터 차요방향으로, 전연으로부터 중심으로 순차성 있게 설비하되, 지휘소용 갱도와 인원 및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위한 대피갱도를 반핵, 반화학적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설비하여야 한다.

... 갱도는 해당 부대의 인원, 무기뿐만 아니라 전투기술기재도 100% 은폐시킬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그래야 적의 각종 타격이 끝난 다음에 즉시 새로운 임무수행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갱도는 야전축성과 배합하여 설비하되 갱도출입구와 참호, 교통호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원형방어가 이루어지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갱도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 “만전쟁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부대의 싸움준비에서 취하여야 할 대책”, 「인민군」, 1991년 제5호(루게 제446호), 1991, pp.13~16.

의 화점들은 서로 화력연계가 보장될 수 있게 설비하여 매 화점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갱도는 이와 함께 자립적으로 전투할 수 있게 그의 전투적 설비와 경리 및 위생시설들도 잘 설비하여야 한다. 갱도의 입구는 여러 개 방향으로 내며, 그것을 면밀히 위장하여야 한다....

만전쟁 때 이라크군은 갱도와 지하은폐부 리용에서 부족점을 발로시켰다. 이라크군은 적들의 폭격이 진행되면 거의 갱도와 지하은폐부에 은폐하는 것으로 그치고 적극적인 반작용을 하지 못하였다. 지휘성원들은 설비된 갱도를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도 부단히 연구 완성하여야 한다.

북한군의 갱도전술 역사는 6·25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군의 갱도와 그에 따른 운용전술은 6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것으로 당시 중공군의 전술을 전수 받고, 만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군의 경우 갱도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⁴⁾

- ① 초창기(창군~한국전쟁) : 중공, 소련 및 일본식 축성방법 모방
- ② 전후 복구기간('53~'54) : 환목으로 유개공사 실시 및 교통호 구축
- ③ 갱도진지 구축('55~'59) : 각종 지휘시설, 화기진지, 후방사업시설의 지하화
- ④ 전쟁준비기간('60~'71)
 - 갱도진지의 적응 및 전술적 이용가치(효과성) 측정
 - 4대군사노선 선언('62년 12월)
 - 비무장지대 갱도진지 공사('69)
- ⑤ 갱도진지 보강('72년 이후~현재)
 - 주요 지역에 대한 진지 확장 및 보수공사
 - 농어촌 지역의 전략촌화(무기고, 대피호, 참호 설치)

특히 중공군 공간사에 의하면 중공군은 1952년까지 갱도 7,789개 198.7km를

4) 육군본부, 교참 30-531, 「북괴군 특수작전」, 1988, p.134.

구축하였고, 엄체호 72만 개, 유개 및 무개 참호 길이 3,420km를 작업 완료하였으며, 북한군이 판 갱도는 총 1,730개 88.3km, 각종 엄체호 3만여 개, 참호 길이 260km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

6·25전쟁의 막바지인 상감령전투 당시 중공군은 3.7km의 좁은 지역에 땅굴을 이용하여 무려 5개 사단의 병력을 투입,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때 아군은 병력 6만여 명, 야포 3백여 문, 고사포 47문을 투입했고, 1백 90여만 발의 포탄과 5천여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등 대규모 소모전을 전개하여 겨우 중공군 2개 중대 규모의 진지를 탈취하는데 그쳤다.⁶⁾

이와 같이 6·25전쟁과 만전쟁의 교훈을 봤을 때 북한군이 한미 연합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전 전선을 갱도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현재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갱도전술은 단순히 방호력을 제공받는 차원을 떠나 구축된 갱도를 이용하여 아군의 후방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시키는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군이 3단계작전으로 돌입했을 경우 북한군은 갱도를 점령하여 방어하면서 전진한 아군의 후방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아군은 갱도 하나하나를 파괴하며 전진해야 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작전개념이나 교리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부대 공세행동에 대한 강조

만전쟁의 교훈은 소부대를 리용하여 적의 뒤통수를 타격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없이는 작전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라크군은 <자살특공대>요 뭐요 하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전쟁기간 소부대를 거의 리용하지 않았다. ... 연합군이 차지한 전선에는 빈익측과 중간지도 많았다.

... 적 비행장은 거의 다 무방비상태였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이라크군이 소보대로 적의 유생력량과 비행장을 습격소멸하였다면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중국 군사과학원 역사연구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譯, 「중공군의 한국전쟁: 抗美援朝戰史」(서울: 세경사, 1991). p.64.

6) 전종순, “1211고지 전투와 공산군의 갱도전술”, 육군대학 군사평론 제347호, pp.155~156.

지휘성원들은 어떤 작전전투형태이건,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건, 유리한 정황이 조성되건 반드시 대부대와 소부대의 배합작전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만전쟁의 교훈으로부터 적 비행장에 대한 습격전, 멸망지대에서의 유격전, 도시에서의 유격전, 항구를 낀 해안도시에서의 유격전 등을 완성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런 사정은 작전전투 때 해군부대와 공중부대에서 그리고 적의 작전 전략적 중심에서의 소부대전도 적극적으로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휘성원들은 습격전, 매복전, 지뢰전 등의 소부대전법을 완성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셋째, 각종 형태의 기만작전에 구사에 대한 강조

이라크군은 적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널판자, 강판 등으로 가짜 유도무기기지, 가짜 전파탐지기, 가짜 비행기 등을 많이 만들어 전국 각지에 배치하고 진짜 장비들은 지하 은폐부에 넣었으며 그의 위장을 면밀히 하였다.

미제 침략군은 공중 촬영한 사진자료에 의지하여 비행대 폭격을 맹렬하게 하였으나 거의 가짜 대상물들만 파괴하였다. 이라크군은 전쟁기간 또한 화학무기를 쓰겠다고 선포하면서 1제대 연합부대장들에게 화학탄을 사용할 권한을 주고 부대들에게는 화학탄 창고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에 속아 넘어간 미제침략군은 이라크가 지난 시기 화학탄을 사용했던 전적이 있으므로 후세의 말이 빈말이 아닐 것이라고 타산하고 반화학대책을 세우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미제 침략군은 만지역에 전개된 첫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막의 불별 속에서 반화학훈련을 하였으며, 지상공격 때에는 방독면과 방독복을 모두 착용하고 전투행동을 벌임으로써 많은 피로를 가져왔으며 전투력도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라크군은 만전쟁 기간 단 한발의 화학탄도 쓰지 않았으며, 화학탄창고도 모두 가짜였다.

지휘성원들은 작전전투 특히 소부대의 습격, 매복 등 전투에서 적을 유인하는 방법에 숙련되어야 한다.

만전쟁 때 이라크군이 고정된 진지에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부대들을 허위기동시키고 집결배치구역을 모의하였다면 미제침략군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적에 대한 유인은 가짜 문건, 가짜 편지, 가짜 대상물 등 유인물을 리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짓밀고를 통하여 적을 유인하는 방법에도 숙련되어야 한다.

적을 속여 넘기자면 은폐기만전술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 지휘성원들은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이지 않게 감추거나 그것을 가짜처럼 보이게 하여 적들을 속여 넘겨야 한다. 또한 가짜 포, 가짜 탱크, 가짜 장갑차들을 많이 만들어 진짜처럼 보이게 하며, 진짜는 감추거나 경우에 따라 가짜처럼 설피게 위장하는 방법으로도 적을 속일 수 있다.

적을 속여 넘기자면 교란기만전술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란기만전술을 잘 벌려야 적들이 아군의 기도를 모르게 하거나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지휘성원들은 여러 가지 가짜 정황이나 가짜 자료를 적들이 실지 정황이나 실지 자료로 믿을 수 있게 교묘한 방법으로 적들을 속여 넘겨야 한다.

2. 전시사업세칙

북한은 2004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로 ‘전시사업세칙’을 발간하였으며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⁷⁾

전쟁은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대결이며, 전쟁의 승패는 정치, 경제, 군사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 크게 달려있다.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립체적으로 진행되는 현대전쟁에 대처하여 전시사업세칙을 내오는 것은 유사시에 전당, 전군, 전민을 하나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움직이게 하고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모든 부분,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전쟁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7)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전시사업세칙>을 내용에 대하여” 2004. 4. 7, pp.1~2.

전시사업체책을 분석하여 정규적 위협과 비정규적 위협의 범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적 위협

- (1) 평시로부터 전시상태에로 전환할 때에는 적을 타격하는 군사행동과 나라의 전시상태 선포, 국가기구와 사업체계를 전시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 (2)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와 내각,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중앙당, 도, 시, 군(구역) 지도기관들은 지휘소(갱도)를 차지하고 지휘를 실현한다.
- (3)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전시 조건에 맞게 모든 부대들에 갱도생활로 넘어감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여 적의 각종 타격으로부터 인원과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4) 각급 지휘관, 참모부들은 인원과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을 갱도와 은폐부에 제대로 대피시키기 위하여 갱도가 없는 단위들은 은폐호와 자연동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분산 배치함으로써 적들의 1차 타격을 비롯한 각종 타격으로부터 보호한다.
- (5) 각급 지휘관 참모부들은 갱도의 생활설비(식당, 우물, 변소 등)들을 부단히 수리, 보수한다.
- (6)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 각급 연합부대들은 제기되는 지상, 해상, 공중정황들을 제때에 종합하여 분석처리하며 해당 단위들에 통보한다.
- (7) 각급 지휘관, 참모부들은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전투용으로 작성한 육해공군 식별신호일람표를 사용한다.
- (8) 해군, 공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협동동작을 위한 작전조를 해당 단위들에 파견한다.
- (9) 각급 부대들은 공격하거나 침입한 적들을 군종, 병종, 전문병들 사이, 자기부대와 린접부대들 사이의 협동동작으로 소멸한다.
- (10) 해안 방어하는 부대들은 해군, 공군과의 협동동작 밑에 상륙하는 적들을 해상에서 결정적으로 소멸한다.
- (11) 탐지전자국과 각급 부대들은 주요방향(구역)들에 전자장애구분대를 집중 배치하고 가장 위험한 적에 대하여 강한 전파장애를 조장한다.

- (12) ...전당, 전군, 전민을 전쟁승리에도 총동원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 (13)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각급 정치기관들은 모든 작전과 전투에서 적군에 대한 정치 사업을 힘 있게 벌릴 수 있도록 역량을 편성하고, 적군을 포섭전취하기 위한 조작, 선전공작을 적극 벌리며 군사적 타격과 배합하여 담판, 담화, 선동, 방송선전, 빼라 살포, 유인, 기만활동을 적극 벌린다.
- (14) 각급 지휘관, 참모부들은 모든 작전과 전투에서 군사적 타격과 정치적 공세의 배합으로 적군을 와해소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15) ...군사적 타격과 배합하여 전략적 및 작전적인 여론전과, 적군 및 적국 주민들에 대한 각성, 계발, 포섭전취 활동을 활발히 벌려 도처에서 투항, 도주, 의거, 전투기피, 반전, 반미시위와 군인폭동, 전민항쟁을 조직하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북한은 평시타격으로부터 전시체제로 동시에 전환함을 강조하고 있으며(위의 1항), 이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국지도발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갯도진지를 활용할 것과(위의 2, 3, 4, 5항) 합동작전(위의 6, 7, 8, 9, 10항)과 전자전(위의 11항) 및 심리전(위의 12, 13, 14, 15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적 위협

- (1)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 근로단체들은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성세정신, 방패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지니고 조국통일과 혁명적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 (2) 각급 부대들은 모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시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전투행동조범을 능숙히 활용할 줄 아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제일 근위병, 제일 결사대로 철저히 준비시킨다.

- (3) ...한목숨 바쳐 싸우는 육탄용사, 자폭용사로 준비시킨다.
- (4) 적후에서 행동하는 부대, 구분대들에서 부족되는 간부들은 해당 부대에 간부 임명권한을 주어...
- (5) ...공작원들의 침투와 대적선전구분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며, 후방지역들에 당 및 정권기관들이 수립되기 전까지 주민정치사업과...
- (6) 공작원들은 대(조)별로 침투경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으로 파견하여 최종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7) 각급 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소부대를 적 후방에 침투시켜 적의 배후를 타격하도록 한다. ...소부대 진입을 비행대 및 함선, 포병집단으로 엄호한다.
- (8) 포병사령부와 각급 부대들은 소부대, 배후타격역량들의 전투행동에 맞게 적들에 대한 포병화력타격조직과 지휘를 실현한다.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전·평시 비정규적 수단으로 북한군 및 주민들을 총동원하고, 이들을 활용 자살폭탄 테러 등을 감행할 것이며, 주요 국가 및 군사시설과 후방지역에 비정규전부대를 침투시켜 습격·타격하는 등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Ⅲ.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양상

1. 위협의 실체에 대한 인식변화

미국의 듀플레시스(Bryan P. Duplessis)는 미국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 능력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비정규전 능력과 혼란 조성 활동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장차전에서 북한군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러한 능력으로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20만에 달하는 특수전부대의 비정규전 능력, 대량살상무기 및 위조지폐, 마약 등의 범죄행위와 버마·랭군 등지에서 보여준 테러 활동 및 국제테러조직 지원활동, 해킹 능력 등을 꼽았다.⁸⁾

8) Bryan P. Duplessi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Conventional or Hybrid Threat?," Policy Forum 07-036,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May

미 육군은 2009년 미래 분쟁을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Unified Quest 2009(UQ 09)' 제하의 패널식 토의 및 전쟁연습을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미래 10~20년 후의 전략적·작전적 도전요인을 식별하여 상정하고 그에 따른 전력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UQ 09'는 미래 전력의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⁹⁾ 2009년 4월 30일 ~5월 8일까지 실시된 모의연습 'The Army Future Game'시 2018년 한반도를 가정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016년 김정일 사망 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핵 처리 시설을 재가동 시키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실행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이에 북한은 2018년 수천 명의 북한군이 탈북 난민 속에 섞여 DMZ를 넘어 침투를 개시함과 동시에 한국, 미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또한 주변국 및 한국의 동맹국에 관해서는 만일 개입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개입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런 가운데 UN 동맹국 공군이 북한의 전력을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지만 타격할 표적이 없다는 교신내용만 들어온다. 이유인즉 북한군이 민간인 또는 한국군으로 위장하고 있어 피아식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제 공동체는 북한 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게임 결과 한국문제는 결말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되었으며 미 육군교육사령관은 연습결과에 대한 강평에서 “북한은 전면적 공격이 아닌 비정규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선택 가운데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다. 또 만일 북한군이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재래식 및 대반란 전술을 조합한 복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여 북한이 향후 하이브리드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우리 군의 위협인식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 전력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⁰⁾ 이는 북한이 기존

8th 2007.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7036Duplessis.html>. (검색일자 : 2012년 4월 17일)

9) U.S. Army Capabilities Integration Center, Fort Monroe, *Unifies Quest 2009: An Army Future Strategy*, Executive Report, 2009, p.1.

10)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23.

의 재래식 전술을 운용하되 전력의 열세를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결프전·이라크전 학습결과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할 공산이 크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010년 발간된 합동개념서는 '작전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군사적 도발과 사이버공격, 테러 등을 조합한 동시 다발적인 위협도 예상된다.'고 기술하고 있다.¹¹⁾

또한 육군의 지상전개념서는 미래전의 일반적 추세가 다양한 조직,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복합적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적대국의 재래식 전쟁위협은 지속되고 군사력이 열세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비정규적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비정규적 위협은 진화된 수단과 방법, 전술을 활용한 복합적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테러, 소요·파괴와 같은 전통적 방법 외에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하고 사이버전, 심리전을 구사하는 등 저강도와 고강도 투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술하고 있다.¹²⁾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군 역시 북한의 새로운 위협양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협의 실체로 인식했을 뿐 이러한 위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대비책도 위협으로 인식한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동작전 범주별로 어떻게 하이브리드전쟁 위협이 전개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합동작전 범주별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쟁 위협양상

합동작전의 범주는 미래 작전환경과 합동군의 역할을 기초로 합동작전을 분쟁 양상과 강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평시 합동작전, 국지전시 합동작전, 전면전시 합동작전 등이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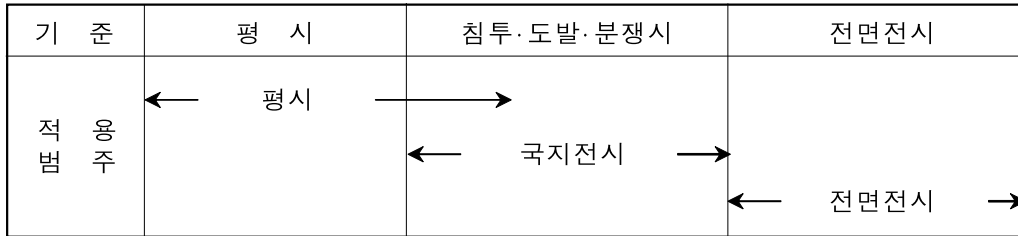
11) 합동참모본부, 「2010~2026 합동개념서」(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p.74.

여기에서 인용한 합동개념서는 비문사항을 제외하고 야전부대까지 배포된 문건임.

12) 육군본부, 「지상전개념서」(대전: 육군본부, 2011), p.2-7.

13) 합동참모본부, 전계서, p.44.

<그림 1> 합동작전의 범주



평시 합동작전은 평시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도록 하며, 위기발생 시 위기가 확대되지 않고 신속히 원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작전이다.

국지전시 합동작전은 북한 및 잠재적 위협국가에 대한 억제노력이 실패하여 군사 및 비군사 수단에 의한 침투, 도발 및 분쟁으로 국지전이 발생한 경우에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축성 있게 대응하면서 위협을 조기에 제거하고 원상을 회복하는 작전이다.

전면전시 합동작전은 북한 및 잠재적 위협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전면전 발생 시에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전이다.

여기서는 평시 및 침투·도발 범주를 하나로 묶어 국지전과 전면전시 북한군의 위협을 상정해보고자 한다.

가. 국지전시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쟁 위협

김일성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전쟁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논리를 전적으로 신봉하였다. 이 논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봉하는 이론으로 레닌이 그랬고, 김일성 역시 그랬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6·25전쟁 이전부터 시작되어 최근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6·25전쟁 직전인 1949년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 극동군사령부 G-3의 분석에 따르면 무려 520회의 북한군 도발이 있었다.

<표 1> 북한군 38°선 무력도발 현황(1949. 1. 1~10. 5)

구 분	웅진	장단	연백 · 배천	개성 · 고랑포	춘천	원대리	주문진	계
도발횟수	95	49	41	126	112	42	55	520회
북한군	31,637	3,007	2,652	19,729	5,424	4,070	2,106	62,856명
국군	16,518	2,008	1,584	14,130	2,651	5,000	2,119	44,010명

출처: FEC G-3, 「북한의 남한침공」 (1949 1. 1~10. 5), SN.212.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선 충돌(1949~1950)」, 국방군사편찬연구소, 1999, p.176. 재인용

또한 국방부가 2011년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휴전 이후 북한 주요 도발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이고, 이중 실제 무력도발 행위는 26건이었으며, 단순한 정전협정 위반건수는 42만 5천 271건에 달한다.

이는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 연락단이 2010년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제8집)’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도발유형을 ▲무장 인원·함정·항공기가 상대방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한 행위 ▲상대방 인원·함정·항공기에 대한 사격 등 적대행위 ▲중화기의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무기발사나 권총 위협 등으로 분류하였다.

주요 무력도발 사례는 1958년 KAL기 피랍사건, 1967년 해군함정 PCE-56함 피격, 19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한항공 YS-11기 피랍사건, 1969년 미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등이다. 또 1970년대에는 ‘70년 국립묘지 폭파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으며, 1980년대에는 ‘83년 버마 랭군 폭파사건, ‘87년 김현의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무력도발이 가장 많았던 1990년대에는 ‘91년 무장경비정 백령도 근해 침투, ‘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96년 동해 무장공비 침투, ‘97년 경비정 NLL 접근 함포사격, ‘97년 대성동 주민 강제 납치, ‘99년 제1연평해전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도발은 정치적 목적, 즉 체제유지, 대북원조 그리고 남한의 정세 개입 등을 위해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손자병법의 ‘戰勝不復(전승불복)’ 즉,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그대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말

처럼 북한은 앞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이것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번민하게 할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에서 한국은 이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데 실패했다. 반면에 북한은 이 사건을 통해 북한정권의 권력 승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유발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앞으로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¹⁴⁾

평시·국지전시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쟁 전개양상을 요약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평시·국지전시 하이브리드전쟁 전개 양상

유 형		전개상황(목적, 요소, 지속성)
평 시	군함/선박 공격	안보불안 조성, 정규병력+비정규병력, 단기
	접적지역 도시 포격	전쟁분위기 조성, 안보불안 조성, 정규병력, 장기
	접적지역 도시 점거	전쟁분위기 조성, 정규병력+비정규병력, 장기
	국가기구 점령/파괴	안보불안 조성, 정규병력+비정규병력, 장기
	주요 인물 납치/사살	안보불안 조성, 정규병력+비정규병력, 단기
국지전	국지전 I	서북도서 공격 점거 및 해방구 선포, 장기 대처
	국지전 II	접적지역 도시 점거, 핵공격 위협, 장기 대처

출처: 박영택,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실행가능성과 전개양상」,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2011년 겨울(통권 94호), pp.117~118.

첫째,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이 군함을 공격하거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다. 민간인 공격에 따른 국제적 비난을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은 이미 연평도 사건에서와 같이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바 있다. 두 번째 양상은 연평도 사건과 같은 접적지역 도시 포격이다. 연평도와는 달리 접적지역에 대한 포격은 그 충격이 지대할 것이다. 경제적 마비는 물론 그 심리적 충격도 매우 클 것이다. 셋째, 접적지역의 도시 혹은 일정 지역을 점거하

14)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p.333.

는 것이다. 이 경우 침투한 병력은 복귀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므로 상호 간의 전투로 인한 군 및 민간의 많은 인명 피해가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 기관 혹은 주요 시설의 점령 또는 파괴다.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옵션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인물에 대한 납치 또는 살해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테러의 범주에서 해석해야 되지만 그 대상이 다수이고 일시에 감행한다면 심각한 안보불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테러는 북한 그 자체와 북한의 지원을 받는 자생적 테러단체도 있을 수 있으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테러집단일 수도 있다. 2001년의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과 함께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ed Terrorism)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성 및 이들 국가에 상당량의 무기를 판매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⁶⁾

하이브리드전쟁을 또 다른 의미로 '네트워(Netwar)'¹⁷⁾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하이브리드전쟁의 적은 네트워크화 된 집단이기 때문에 기지(基地), 지원 및 핵심시설 등 전쟁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하며, 공격을 위한 제반 수단들을 상대 국가의 사회에서 획득·활용한다. 이들 적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하루 안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화 되어 있고 고도의 기동성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폭탄테러의 경우 폭발물은 네트워크에 의해 원격조종되는 한국 내 종북자들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화학 작용제, 생물학 무기와 소형 전술핵무기를 동원한 테러 가능성이다. 김관진 국방부장은 2011년에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가능성을 언급한바 있고, 북한이 핵배낭부대를 창설했다는 첩보도 있다. 이에 동원되는 요원과 무기는 잠수함정과 반잠수정(대동급)을 이용하여 수송할 수 있다. 특히 한강에 설치된 대(對)침투철조망이 제거되고 있어 한강을 통한 단거리 수중침투도 가능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추가하여 무인공격기를 이

15) 박영택, '북한의 하이브리드戰 실행 가능성과 전개 양상,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27권 4호, 2011년 겨울(통권 제94호), pp.117~118.

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1", May 2002, pp.63~68.

17) RAND 연구소의 분석가인 John Aquilla와 David Ronfeldt가 네트워크화 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저항도 분쟁, 범죄, 행동주의 등 새로운 전쟁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 일반적으로 네트워의 행위자들은 분권화 되고 신축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범죄조직, 행동주의자, 사회운동 등을 포함한다.

용한 도발, 서해5도 포격, 원전/전력망/댐/지하철에 대한 공격, 여객기 납치 공격(9·11테러형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평시 또는 국지전시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쟁 전개 양상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양상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함께 그들이 보유한 특수부대를 지상·해상·공중을 통해 동시 투입하여 극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자폭정신을 전쟁관념으로 하여 무장하고 있으며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배합전 수행이 가능한 다양한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이들 특수부대가 야음을 틈타 침투하여 우리 사회내부의 혼란을 조성할 수도 있다.

또한 자살특공대는 주요 시설 또는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건물에 인간폭탄이 되어 테러를 자행하고 이와 함께 사이버전을 병행하여 국가 및 군·경의 지휘체제를 마비시키며, 각종 기반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한편으로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동맹국과 주변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그들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반면 우리가 대응하기 곤란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전시사업세척에서 언급한 총폭탄정신, 방패정신, 성세정신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 핵 위협을 통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평시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통해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재래식 전력을 투입,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나. 전면전시 하이브리드전쟁 위협

이스라엘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벤 크레벨드(Martin van Creveld)는 이미 1990년대 초 'The Transformation of War'라는 그의 저서에서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정밀과학무기들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원시적인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¹⁸⁾

그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미국 이외의 타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첨단무기를 모두 갖추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따라 상대국들

18) Martin van Creveld, "The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Inc.>, 1991), p.199.

이 채택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미국의 첨단무기 사용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크레벨드의 예측을 뒷받침해주었다.

세계의 많은 적성 국가들이 이러한 교훈을 터득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양상의 전쟁은 중동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21세기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 부임한 직후 월터 샤프(Walter L. Sharp) 대장은 'Stars and Stripes'지와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이라크에서의 교훈을 배웠을 것이며, 그 교훈을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에 적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미국도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군이 6·25전쟁과 같은 정규전형태의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개입문제이다. 북한이 현재까지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그들이 가장 장애물로 생각하는 ‘미군 증원’이라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핵무기의 위협에 의해 만일 미국의 개입 여부가 불투명해지거나 지연될 경우 미군의 증원 이전에 속전속결을 시도할 것이다.

참고로 북한군이 2006년 발행한 ‘학습제강’은 비선형·비접촉 작전 등 새로운 전쟁방식의 출현을 강조하면서 현대전을 입체전, 정보전(정찰전, 전자전, 사이버전, 심리전), 비대칭전, 정밀타격전, 단기속결전 등으로 규정하고 기계화전, 공중기동전, 포병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단기속결전 수행을 위한 전방집단군 역량, 비선형전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배합전 수행능력 및 현대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⁹⁾

북한이 단기속결전을 시도할 경우 하이브리드전쟁의 위협 양상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위협은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 위협모두가 전 전장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 육군본부, 전계서, p.2-11.

첫째, 'UQ 09'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처럼 북한은 특수부대를 주민으로 가장하여 난민들과 함께 DMZ를 넘어 침투시킴과 동시에 육상·해상·공중을 통해 대규모 특수부대가 침투한다. 미 정보당국에 의하면 유사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소형 잠수정과 고속보트, 약 20개의 지하터널, AN-2 등을 이용, 대거 침투할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참고로 북한은 전략·작전적 수준의 배합전 수행이 가능한 다양한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제11군단 예하에는 항공육전여단·정보여단·저격여단을, 해·공군사령부 예하에 저격여단을, 집단군(군단) 예하에는 경보병 사·여단과 전방사단에 경보병 연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병력규모는 2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¹⁾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군의 현 '후방지역작전' 교리는 북한군 전 병력(119만 명)의 15% 이상 수준인 특수전 부대와 비정규전에 대해 그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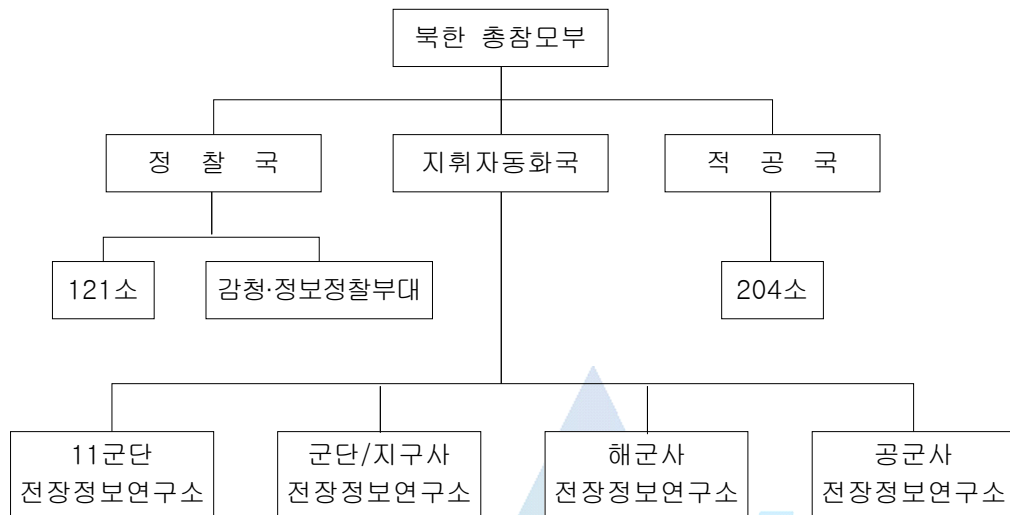
둘째, 북한은 개전 이전부터 강력한 사이버전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최근 북한 군사능력 변화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자 및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확충이다. 전자공격은 물론 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전자기 폭탄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전문 해커를 양성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전자 및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전자 및 사이버전 <그림 3>과 같이 총참모부 예하의 정찰국과 지휘자동화국, 적공국 등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 북한군 특수부대 '자폭정신'을 전쟁관념으로 무장, http://www2.wikitree.co.kr/popuppop_print.php/?id=46331 (검색일자: 2012년 4월 17일)

21) 육군본부, 전계서, p.2-10.

<그림 2> 북한의 전자·사이버전 부대 편성



개전 초기 북한군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아군의 지휘통제만을 무력화시키고, SCADA 시스템²²⁾을 공격하여 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극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후방에 침투한 특수부대는 주요 인물 암살, 국가시설 파괴,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반정부여론을 확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한국군 복장²³⁾을 착용한 북한군 특수부대가 양민을 학살한다. 이 모습이 위성 TV, 인터넷, SNS 등에 떠돌아다닌다. 이에 따라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결국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아군의 공중 또는 포병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북한 민간인의 참상을 촬영한 후 관련 동영상을 위성 TV 또는 Web상에 올려 한국군의 비도덕적 만행을 왜곡 선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할 것이다.

다섯째, 아군의 ISR+PGM 장비가 주요 표적을 탐지·타격하여 북한군의 전

22)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또는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시스템이라고도 하는 감시제어기능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통신경로상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원격장치의 상태정보데이터를 remote terminal unit로 수집, 수신 기록·표시하여 중앙제어시스템이 원격장치를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발전·배전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공장 시설, 공장자동화 시설 등 여러 종류의 원격 시설 장치를 중앙집중식으로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23)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생포된 이광수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의 고정간첩이 러시아 상인으로 하여금 한국군이 사용하는 군복 원단을 러시아로 가져가게 만든 뒤 이를 다시 북한이 역수입했다고 한다.

<http://www2.wikitree.co.kr/popupprint.php/?id=46331>(검색일자: 2012년 4월 17일)

투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북한군이 기만을 위해 설치한 모의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투력 할당과 작전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이 실제로 화생방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제적 여론으로 인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아군에 대해 핵 및 화학·생물학 공격을 감행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유사시 이를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아군을 위협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단의 첩보에 의하면 북한군의 화학무기 창고에서 미상 물체가 전선(戰線)으로 수송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라크의 허위첩보에 당한 미군처럼 이럴 경우 아군은 그에 대비할 수밖에 없어 매 작전마다 탐지 및 보호활동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전투피로가 누적되고 전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틈새를 노려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을 아군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무력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일곱째,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은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주변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는 개입의지를 밝힌 동맹국의 민항기를 폭파하는 등 테러를 자행하여 개입의지를 굴복시키고자 할 것이다.

여덟째, 북한의 난민들은 한국정부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을 호소할 것이며, 국제적 여론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만일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거나 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행위는 엄청난 시위·파괴 활동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남한 내에서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북한이 단기속결전을 예상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군이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경우에는 현재 이라크에서의 반란전 형태를 취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전쟁목적은 한반도 적화통일에서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위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이 작전한계점(Culminating Point)에 도달했을 때 한국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우리의 계획은 아직까지 재래전 위

주로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상황에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은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북한의 지도층이 붕괴되더라도 그 하부지도 계층에는 여전히 상당한 힘이 남아 있을 것이며 쉽게 그 권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15~20명에 이르는 북한군 군단장의 경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지역 군별로 정착하여 현재 이라크 내전과 같은 장기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군벌세력은 충성심 높은 병사들을 규합, 범죄조직의 두목 역할을 하면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 형성되어 있는 암시장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군벌세력은 동북아의 범죄세력과 연계하여 무기나 마약 밀매 등을 통해 세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 내의 공작원들을 활용하여 한국의 내부 붕괴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⁴⁾

둘째,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단 시일 내에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은 6·25전쟁 기간과 이후 4대 군사노선을 통해 전 국토를 요새화하였고, 걸프전 후에는 ‘만전쟁의 교훈’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6·25당시 중공군이 수행했던 이른바 ‘쟁도전술’을 구사할 것이며, 이럴 경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신속하고 압도적인 기동이 아니라 쟁도 하나하나를 파괴하면서 전진해야 하고, 때로는 쟁도에서 튀어나온 적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후방 기습을 당하는 등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전환될 경우 전장의 하이브리드전쟁의 환경은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단의 경우 1개 연대는 북한군의 정규군과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고, 1개 연대는 민간복장을 한 게릴라와 교전하거나 IED에 봉착되어 고전할 수도 있으며, 나머지 1개 연대는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에서 주민통제와 안정화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등 전 전장에서 모든 범주 및 형태의 작전이 동시에 수행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과 북한의 위협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한반도에서 하이브리드전쟁이 수행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입장에서

24)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 “비대칭 전략과 한국의 군사기획”, 「전략연구」, 통권 제15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7, pp.77~79.

도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전쟁은 그동안 전쟁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비정규전과 테러, 또는 범죄 등이 전쟁의 승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울러 현재 및 미래 안보 환경 하에서 북한의 도발 혹은 전쟁의 의도와 목적이 보다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제한된 능력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으로서 하이브리드전쟁을 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선군정치는 북한군의 역할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북한군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동원한 모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도덕성 및 인간애가 결여되어 있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공격할 것이다. 더욱이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다양한 전술 구사를 유리하게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즉,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지·해·공 전 공간을 통한 침투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국가 주요 인프라가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⁵⁾

IV. 우리 군의 대비방향

여기서 제시하는 대비방향은 전쟁수행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는 우리 군의 합동개념서나 각 군의 교리가 재래전을 최우선적으로 상정하고 하이브리드전쟁의 위협도 있을 수 있다는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하이브리드전쟁이며, 그 속에 재래식 형태의 전쟁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야 비정규전 합동 운영개념서를 발행하기까지는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월남전, 그리고 레바논전과 소말리아 내전 등 미군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라크전쟁에서 실패를 되풀이 한 후에야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25) 박영택, 전개서, pp.108~109.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군사력 건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孫子兵法 兵勢編 第五에서는 ‘凡 戰者 以正合 以奇勝’이라 하여 무릇 전쟁을 할 때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여 대비하되, 실제 전장에서는 적이 예상치 못한 용병술로 승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오늘날에 풀어 말한다면 정규적(regular) 방법으로 능력을 강화하여 전쟁의 억제와 도발위협에 대비하되, 실제 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정규적(irregular) 방법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의 생각과 행동을 최대한 예측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전혀 적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합동 전투발전분야(교리, 구조·편성, 무기·장비·물자, 교육훈련, 인적 자원, 시설)를 토대로 대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작전효과 증대 수단으로서의 합동성

하이브리드전쟁 하에서도 합동성의 본질과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 여기서 합동작전의 본질은 각 군의 능력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조화시키며 효과성을 강화하고, 타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군의 능력을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군이 나름대로의 제한사항을 감수해야 하며, 작전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비용, 훈련, 기술, 상호운용성, 지휘통제 등 작전기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합동작전은 작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획·시행되어야 하며, 합동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하이브리드전쟁 상황 하에서는 모든 작전에 합동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거나 오히려 복잡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합동제대 지휘관은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합동작전의 제한사항을 인식하고 그러한 제한사항 내에서 합동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위협은 다양하고 시·공간적 동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동제대 지휘관은 다양한 작전 범주와 형태별로 배합과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황의 진전에 따라 그들을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재

배합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념 및 교리의 개발

우리 군은 개념에 의한 소요창출 체계(CBRS: Concept Based Requirement System)에 의해 미래 전력소요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 하향식(Top-Down) 및 각 군의 상향식(Bottom-Up) 전투발전 소요를 통합 발전시키고, 이를 소요기획체계에 연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교리도 '개념'에 기초해야 한다. 현재 합동 및 각 군 개념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합동개념서의 기본 개념은 '효과중심의 동시·통합 작전'이며 육군의 지상전 개념서는 '네트워크 기반 하 통합작전', 해군은 '네트워크 중심의 다차원 통합 기동전', 공군은 '네트워크 기반 효과중심의 항공 우주작전'이다.

<표 3> 합동 및 간 군별 기본 개념

구 분	기 본 개 념
합 동	효과중심의 동시 통합작전
육 군	네트워크 기반 하 통합작전
해 군	네트워크 중심의 다차원 통합 기동전
공 군	네트워크기반 효과중심의 항공우주작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합동 및 각 군 개념서는 하이브리드전쟁보다는 정규전에 대비하는 개념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전쟁 상황 하에서 효과(effect) 중심적 사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전쟁 위협 하에서는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 테러, 범죄행위 등 다양한 전쟁의 범주와 형태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병종이나 병과를 막론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미 육군 작전수행 개념이 '전 영역 작전'으로 변화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작전수행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발전분야의 소

요를 창출하는 개념은 하이브리드전쟁의 두 가지 큰 특징을 염두에 두고 기본 개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형태는 정규전 또는 비정규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하이브리드전쟁은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분류한 어떤 전쟁의 형태로 분류할 수 없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용어가 영역(스펙트럼: spectrum)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미군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육군의 지상전 기본교리의 경우 작전수행 개념을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²⁶⁾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 전장’이라는 용어를 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전쟁의 전 영역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면에서는 하이브리드전쟁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어떤 용어로든 미래의 전쟁은 모든 형태, 범주, 작전 등을 망라한다는 의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하이브리드전쟁의 특성은 전쟁의 전 영역을 망라한다는 것 외에도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점이다. 합동개념서가 ‘동시성’의 개념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는 NCW 하에서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전쟁 영역과 범주 및 작전형태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 영역’과 ‘동시성’ 이 두 가지 개념이 핵심적으로 포함되도록 개념서가 작성되어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야전에서는 합동 또는 각 군의 개념서를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그것은 초급간부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관급장교들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소령·중령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지상군 기본교리 순회교육을 하면서 합동개념서에 관해 질문했을 때 교육에 참가한 인원의 95% 이상이 그것이 있는지, 그리고 2010년에 발간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역으로 그들의 위치와 역할에서 개념서의 존재 여부를 몰라도 지금까지 군은 잘 운영되고 있

26) 육군의 지상전 기본교리가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전쟁의 특성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세적이라는 용어를 ‘동시’라는 용어로 바꾼다면 훨씬 나은 개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세적’이란 용어는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어느 전쟁 또는 작전이건 공세적이 아닌 수세적 태세(posture)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수행해야 할 원칙은 기술하지 않아도 이미 전쟁의 원칙과 준칙에 포함되어 있는바 개념에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개념서를 만드는 부서는 그저 만들어 내면 그만이지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소요에 반영하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것이 우리 군의 작전수행 개념을 정립해주고 소요를 창출해야 하는 개념서의 현 주소이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 수 있건만 개념서가 비문으로 되어 있으니 보기도 힘들고 보는 것도 귀찮다. 일과가 바빠 집에 가서라도 보자니 비문이라 대출도 되지 않는다.

왜 군이 개념서를 비문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미군의 합동기본개념서(CCJO)는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비문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념서가 개념서라기보다는 작전수행 지침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서가 너무 개괄적이어도 문제지만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면 야전부대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수립된 계획에 개념서라는 존재가 구체적인 작전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그 사이에서 당연히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적의 단대호나 규모를 명시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비문으로 등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래전 개념서인가 아니면 작전지침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현재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개념에 따른 소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개념을 구체화시켜 소요에 반영할 것인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즉, 소요의 원천인 야전 및 실무부대에서 모든 간부들이 개념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大觀) 자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細察) 수 있고 이로서 상하 모든 제대의 업무가 통합 및 정렬될 수 있으려 이때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소요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장차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동 차원에서 비정규전, 침투 및 국지도발, 안정화작전, 갱도작전, 도시지역작전 등의 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비정규전 분야는 예전부터 북한의 배합전 위협을 상정하였으면서도 전혀 발전시키고 있지 않은 분야이다. 침투 및 국지도발 분야는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위협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합동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

지역작전도 정규전 개념뿐만 아니라 비정규전 수행에 따른 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안정화작전 분야는 별도의 교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동작전 범주의 각 작전형태별 연속선상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경우 정규작전과 안정화 소요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경우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교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 사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어떻게 북한의 모든 저항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북한군의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이들의 민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전환시킬 것인가 셋째, 어떻게 북한의 군수물자를 확인하고 확보할 것인가 넷째, 어떻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색출·제거할 것인가 다섯째, 어떻게 민간질서를 확립할 것인가 여섯째,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일곱째, 북한지역을 문민통제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군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²⁷⁾

3. 부대편성

하이브리드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대는 소규모·경량화 되어야 한다. 마오쩌둥이 게릴라부대는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로 정규군은 ‘깊이 뿌리 내린 나무’로 비유한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전쟁에서 대규모 밀집된 부대와 강력한 무기는 적으로부터 파괴 대상의 목표물이지 힘의 과시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전쟁 환경 하에서 부대의 단위는 작아야 할 뿐 아니라 기동성 있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병종 및 병과를 막론하고 부대는 고유의 임무 외에 하이브리드전쟁 위협으로부터 발생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장비되어야 한다.

미군의 한 포병장교는 이라크 전후의 상황에서 야전포병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수색정찰, 민군작전 등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의 왕’으로 군림했던 포병이 지금은 ‘냉전

27)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e), 「국방개혁 2020의 再考,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한국의 국가안보기획」, 국회 국방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년 8월, p.38.

시대의 유물', '살상제조기(Casualty Producer)'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라크에서 미군 포병이 이와 같은 오명을 쓴 이유는 반란군들이 민간인과 혼재된 상황에서 공격을 가해 왔고, 포병이 이들 표적을 타격할 경우 불가피하게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를 타개하고 다시 전장의 왕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야전포병도 비 살상무기의 개발 및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미 포병장교가 기대한 '왕의 귀환'은 앞으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비단 포병병과뿐만 아니라 제 병종, 제 병과가 본연의 임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구비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육군의 예를 들어보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쟁 하에서 야전포병은 화력지원 임무 외에 수색정찰, 대침투작전 등의 보병임무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전에서 가장 필요했던 장비와 물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 특히 방탄복의 소요가 급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군도 제 병종·병과가 기본임무 외에 다양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과 장비·물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무기체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안보계획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기·장비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무기를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은 가장 첨단화된 무기조차도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든 무기체계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전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수정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례로 미군은 최전선용으로 장비된 것이 아닌 알루미늄 유리섬유를 장착한 험비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 험비들은 IED, 휴대용 대전차유탄발사

기, 심지어는 AK-47 소총에도 취약하였다. 2003년 8대의 험비 가운데 1대만이 장갑을 부착했을 뿐이었다. 2003년 미 국방성 장갑 험비의 생산을 급히 증가시켰지만 그동안에 일부 부대는 차량에 임시방편으로 '힐빌리 장갑(Hillbilly Armor)'이라는 장갑 패널을 부착해야 했다.

이와 같이 이라크전에서 반란군의 IED와 지뢰에 호되게 당한 미군은 MRAP(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라고 불리는 장갑차량을 서둘러 배치하였다. MRAP는 V자형 강판으로 제작된 차체 하판을 갖고 있어 차량 아래쪽에서 지향성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폭발을 좌우로 분산시켜 차체와 차내의 승무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지뢰나 IED에 의한 피해를 크게 경감시키며 13kg 이하의 TNT 폭발에 방어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미 해병대 MRAP인 '쿠거'는 통상적인 대전차지뢰 폭약량의 약 40배에 이르는 226kg의 지뢰에 피격되어 엔진 블록이 100m 이상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지만 내부 승무원들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걸어 나온 적도 있었다.²⁸⁾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전통적 개념의 전투에서 탱크는 어느 정도 떨어진 전면(前面)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탱크는 전면 부위를 장갑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에서 반란군들은 급조폭발물과 폭발력이 우수한 침투무기(EFP: Explosively Formed Penetrators)를 이용해 지근거리에서 탱크 하단부 또는 후미를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은 후미에서 다가오는 적을 탐색하기 위해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탱크 외부의 기관총을 원격으로 조종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엔진을 적의 대전차화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릴(Grille)을 설치하였다. 또한 14,000여대의 험비 역시 장갑 설치 등 취약점을 보완하였다.²⁹⁾

위의 교훈을 참고로 미래전 수행을 위한 별도의 무기체계와 장비를 개발하기 보다는 미래 위협을 상정한 소요를 파악하고 이들 장비에 추가적인 성능 개선 또는 형상변경을 통해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개발·획득단계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획득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미래전에 적합한 다목적

28) 유용원, "한국형 차륜형 장갑차와 MRAP의 필요성," *The Army*, Vol. 2. 2009년 2월, p.97.

29) 전종순, 「하이브리드전쟁(The Fourth Generation Warfare)과 대비방향」,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合同軍事研究 제18호, 2008년, pp.39~40.

기능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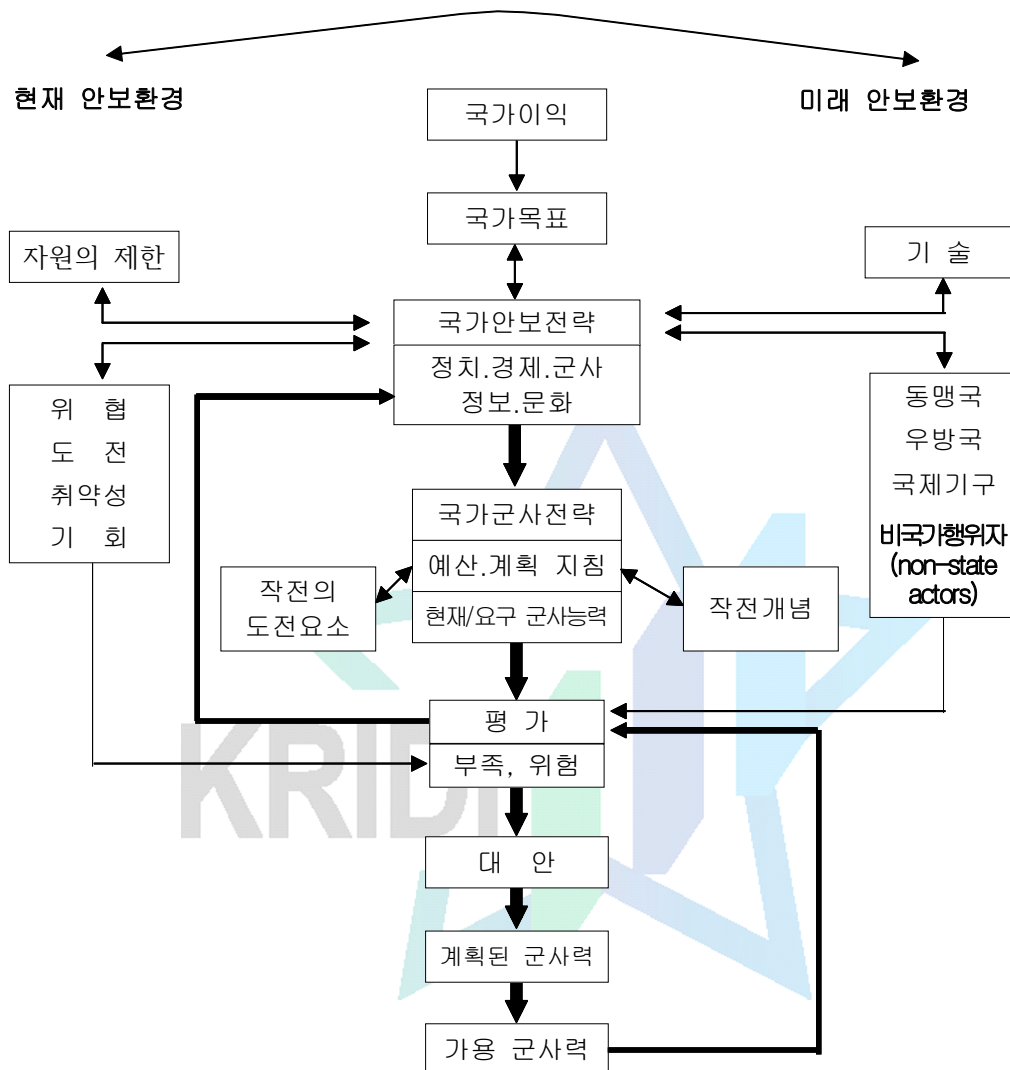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전력기획 Framework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략기획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에 근거하여 군사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전력기획은 전략기획 과정을 통해 결정된 군사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기획과정에서 우리는 미래의 다변화된 위협을 제대로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로이드(Richmond Lloyd)의 Framework은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9·11테러를 교훈으로 다양하고 긴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하여 능력(capabilities)관련한 소요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⁰⁾

도표의 상부는 국가이익에서 출발하여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 하부는 군사력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때 원편의 위협, 도전, 취약성, 기회 등은 현재 및 미래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며, 오른쪽은 수단(means) 및 영향요소들로서 동맹국, 우방국, 국제기구 및 비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물론 한정된 자원의 제약으로 모든 위협에 대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향후 수년 또는 수십 년간 그 결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위협에 대비해 나가되 예측 가능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과 전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0) P. H. Liotta & Richmond Lloyd, *"From Here to There,"*(Newport: US Naval War College, 2005), p.130.

<그림 4> Lloyd의 전략·전략기획 Framework



5. 인적 자원과 리더십

템플라(David A. Deptula)는 미국의 걸프전쟁은 일반적인 기술적 우위가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인상 깊은 우위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쟁은 전적으로 최첨단 군사기술에만 의존해서 승리하지는 않았다. 사실 근대의 어떠한 전쟁도 기술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³¹⁾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성취했던 초기의 승리는 단지 우수한 기술에 토

31) Michael I. Handel, 박창희 譯, 「클라우제비츠, 손자 & 조미니」(서울: 평단문화사, 2000), p.51.

대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보다 잘 준비된 계획, 훌륭한 지도력과 동기 그리고 전쟁에 투입되는 병사들의 높은 사기가 있었다. 또한 독일이 결국 패배한 이유도 기술의 열세 때문이 아니라 연합국의 막대한 경제력, 결단력, 정치적 결속력 때문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과 우세한 군사기술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분명한 해답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한다.³²⁾

미 공군의 유명한 군사이론가인 존 보이드(John Boyd)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전쟁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사람은 정신적인 능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전쟁은 인간 먼저, 개념 다음, 그 다음이 수단(무기체계)이다.”³³⁾라고 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행동은 여러 정신적 힘과 그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에서 “물질적 요인들의 작용은 정신적 요인들의 작용과 완전하게 융해되어 있어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미군이 “전쟁은 생각하는 사람의 게임이다(War is thinking man's game)”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쟁이 인간의 지력(知力)과 싸우는 것임을 인식해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장병들에게 전쟁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전사(戰士)를 육성해야 한다.

육군본부에서 전군에 하달한 스탠드식 현판에는 “적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발한다. 오직 전투만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적이 또 다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발할 경우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조 섞인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오직 전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적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발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에 대비하라.”는 구호가 더 적절할 것이다.

32) 상계서, PP.52~53.

33) Grant T. Hammond, "미 공군의 전쟁수행 방식,"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譯, 「전쟁원칙의 신사고」(미 해군연구소, 2005), p.148.

앞에서 제시했지만 미래의 리더는 전투지휘, 부대관리, 전략·작전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식견과 상대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Soft Power'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Hard Power와 Soft Power를 동시에 구비한 Smart Power 리더를 중시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전쟁의 주창자인 린드(William S. Lind)는 미래전에서 전쟁의 세 가지 수준은 전략, 작전술, 전술이 아닌 ① 물리적 수준(Physical Level), ② 정신적 수준(Mental Level), ③ 도덕적 수준(Moral Level)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리적 수준이란 적에 대한 직접적 타격을 의미하며 이는 가장 비효과적인 전술적 수준의 방법이고, 도덕적 수준이 가장 최상의 수준이며 정신적 수준은 이 두 가지의 중간적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미래전에서는 전술적 승리(물리적 파괴)보다 분쟁지역의 주민을 보호하는 '도덕 폭탄(Moral Bomb)'을 이용한 전략적 수준의 승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³⁵⁾

실례로 적의 침투 상황 또는 안정화작전 시 적의 중심(重心)은 주민들의 협조이며 이것을 파괴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주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패퇴한 적의 소규모 게릴라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통해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그들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게 되고 이는 결국 전략적 실패로 연결된다. 아군 전투원이 민간인 복장을 한 적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리더가 부대원에게 강조해야 할 것은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냉철한 이성이다.

미군의 경우 이라크 포로 성추행 문제를 야기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여기서의 교훈은 아무리 일개 병사라 할지라도 전략적·정치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린드는 이를 '전략적 분대장(Strategic Corporal)'이라고 표현하였다.

화선선전, 화선선동 등 심리전을 강조하는 북한군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의 경우 특히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만일 적개심에 불탄 병사가 북한 주민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신문(訊問)하는 과정이 어느 경로에

34) 유명덕, 「성공하는 지휘관이 되려면 Smart Power 리더가 되라」, 국방리더십저널, Vol. 39, p.3.

35) FMFM1-A Draft 4.2, "Fourth Generation War," Imperial and Royal Austro-Hungarian Marine Corps, 18 June 2007, p.7.

의해 유출되어 Web상에 게시될 경우 우리의 전쟁목적 자체가 국제적으로 왜곡되거나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리더십 문화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평화유지작전 소요가 더욱 증대되는 추세에서 기술중심적 NCW 개념도 중요하지만, 인간중심 (Anthropocentric)의 문화중심전(Culture-Centric Warfare: CCW)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그리고 평화유지작전 및 안정화작전을 위한 전문 인원·부대의 양성과 평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우리 군을 이끌어 갈 리더는 작전술 수준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국력의 제 요소와 군사력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의 전문가이어야 할 것이다.

6. 교육훈련

앞에서 제시한 ‘以正合 以奇勝’ 측면에서 정규전에 대비해 합동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동성은 전시(戰時) 그것도 정규전 위주로 상정한 것이지 지금까지 논의한 하이브리드전쟁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물론 새로 발행된 합동개념서 합동작전 범주별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합동성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해당 제대가 어떻게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쟁연습 과정을 살펴보면 준비태세-GOP작전-FEBA"A" 작전 그리고 역습 및 반격단계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적 특수작전 부대의 침투가 있지만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면 그뿐이다. 반격작전 단계에서도 정규전 위주의 공격 기동형태에 관심을 갖지 전후 반란전 형태의 비정규전이나 안정화작전은 뒤편이다.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은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그에 대한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모습을 보면 상황조성이 순차적이거나 너무 단순하다. 실례로 합참에서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훈련할 경우 첫 번째 상황은 적 특수부대의 침투로 시작되는 대침투작전이다. 훈련부대가 작전을 개시하여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두 번째로 적 화력도발 상황이 부여된다. 이렇게 훈련하면 아무런 문제점도 찾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 계획수정 소요나 훈련소요도 도출되지 않는다. 이제 반복 숙달만 시키면 대비태세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육군에 국한되긴 하지만 대침투작전의 경우는 병과를 막론하고 지역의 모든 부대가 보병인 분구장의 통제 하에 장악된다. 여기에 적의 화력도발 상황이 부가되면 포병지휘관은 화력도발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 분구장 통제 하에 있는 예하 포병부대를 자기 휘하에 넣고자 할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지휘통제 면에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C4I체계도 마찬가지이다. 분구장은 ATCIS를 통해 예하 부대를 장악하려 할 것이고 포병지휘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1개 회선밖에 보유하지 못한 예하 대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가장 신속을 요하는 국면에서 반응시간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것이 작전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서 훈련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 지휘관은 창의적으로 다양한 훈련 상황을 조성하여 부대를 교육·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전투발전소요를 도출해야 한다. 기존의 개념에 기초한 훈련은 장병들의 의식과 행동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유사시 적응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7. 정보수집 및 처리체계

미국이 이라크전 후 정보수집에 실패한 이유는 NCW를 과신한 나머지 인간정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것은 적이 워낙 소규모이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첨단 위성 및 ISR체계로도 식별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전쟁 후 미군이 수집한 정보의 95%는 스파이에 의한 인간정보였으며 단지 5%만이 그들이 자랑하던 첨단 정보기술에 의해 획득된 것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CIA, FBI,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이 각기 수행해 왔던 국외 인간정보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기구로 '국가 비밀 공작국(National Clandestine Service, NCS)'을 2005년 10월 설립하여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HUMINT) 활동을 강화하였다.³⁶⁾

차제에 우리 군도 미래전에 대비해 인간정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전에서 정보의 내용은 적 지도자의 개인적 성격이나 성향, 가족관계, 주의(主義) 등 인간적 차원(Human Dimension)의 것일수록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분야에서 미군의 또 하나 실패요인은 정보공유체제가 비효율적이었던 것이다. 기존의 정보는 적의 형태, 규모, 주요 활동지역 등 단대호로 표기되었고, 여기에 지형과 적의 교리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정보활동은 Top-Down식의 복잡한 계층구조를 통해 예하 부대에 하달되었으며 인접기관, 심지어는 기관 내의 타 부서 간에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전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작전이 진행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때 해당지역의 말단부대에서 획득한 정보가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는 해당지역의 작전환경에만 적용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병사 각 개인 모두가 정보수집의 출처이자 분석자,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Bottom-Up 형태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타파하고 정보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보공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 환경(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관리국'을 설립하고 '국가정보부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게 정보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구조적으로 매우 상이하여 미국식 정보공동체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보기관들 사이의 유사기능을

36) 전웅, 「9·11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8, p.91.

통합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되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부응하여 효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마트한 폭탄은 일단 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야 적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스마트한 인간’이다.³⁷⁾

8. 임무형지휘의 발전 및 정착

임무형지휘는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이 아날로그 시대보다 더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다.³⁸⁾ 지휘관계의 상급자는 하위제대의 상황을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급자가 최적을 답을 내도록 지도하는 입장에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단 전투부대의 상황은 그 현장에 있는 소부대 지휘관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ODA³⁹⁾ 534의 지휘관인 딘 대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되었을 때, 그가 할 일은 슬라이드 몇 장 안에 다 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거기에는 그에게 부여된 임무만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그에게 달려있었다. 딘 대위는 후에 이러한 분권화와 공조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⁰⁾

이와 같이 정보화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권한과 책임의 위임 및 분권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전략제대의 지휘관이 전술제대 말단 지휘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임무형지휘의 실상을 파악하고, 발전개념을 정립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사항을 식별해서 미래전에 적합한 한국적 임무형지휘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37) Max Boot, "War Made New," 송대범·한태영 譯, 『Made in War: 전쟁이 만든 신세계』(서울: 플래닛 미디어, 2007), p.826.

38) 권태영,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지상군 역할 확대전략," 육군 정책포럼: 지상군 발전 미래전략 구상, 2009년 2월 12일, p.61.

39) ODA(Operational Detachment-Alpha):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작전 최소단위 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위 A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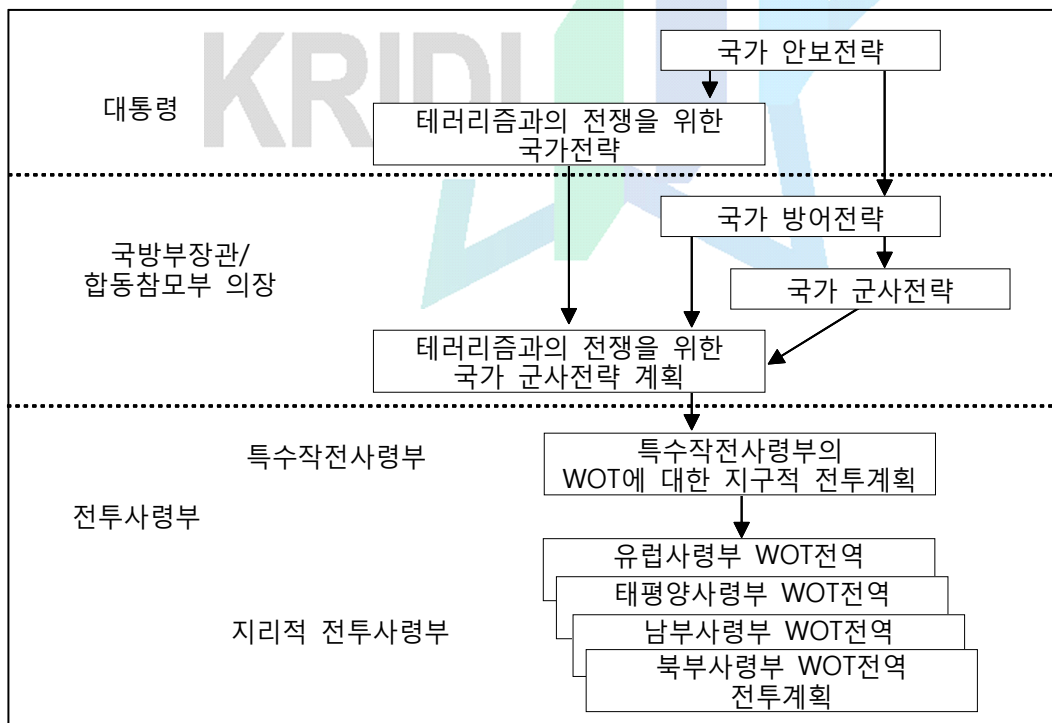
40) Max Boot 著, 송대범·한태영 譯, 전거서, p.745.

9. 군사전략 차원의 테러대비책

미국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국가군사전략계획(NMSP-WOT)’⁴¹⁾은 테러리즘과 지구적 차원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미 본토의 방호를 포함하여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저지·분쇄하기 위해 전투지휘관 및 관련 부서에 대해 기획과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며 관련 문서의 성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군의 전략 기획 문서상으로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전략차원의 지침과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대테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군사적 차원의 지침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 NMSP-WOT와 관련 문서체계



41) NMSP-WOT: National Military Strategic Plan for the War On Terrorism.

V. 결 론

냉전이 종식된 후 소련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사라졌지만 세계는 지금 4GW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쟁 이론은 1989년 린드 등 미 군사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별다른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알카에다의 은신처를 수색하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토라보라 동굴에서 하이브리드전쟁에 대한 교리가 담겨있는 문서를 발견할 정도로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개념은 이미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전쟁에 관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전후 미군의 경험은 첨단화된 기술도 그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의 미군이 간과한 것은 전쟁이 인간에 의해 수행된다는 본질적인 개념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과학기술과 2·3세대적 전쟁의 사고(思考)에 집착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서 지속되고 있는 분쟁은 하이브리드전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라크 내의 저항세력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씩 달성해 나감에 따라 마오쩌둥의 예에서 보듯이 하이브리드전쟁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루퍼트 스미스(Rupert Smith)는 전력은 수단 곱하기 방법의 제곱 곱하기 의지의 세배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하였다.

$$\text{전력} = \text{수단} \times \text{방법}^2 \times 3\text{의지}$$

이라크의 미군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군사적 위협은 물론 다변화된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ies)’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능력은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위협의 인식이 없이 구비된 능력은 그 위협이 현실화 되었을 때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편성, 장비, 싸우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경연장이 아니다. 전쟁의 본질은 무기만이 아니라

전사(戰士)와 무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스마트 폭탄은 단지 몇 미터의 오차로 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결국 스마트한 사람이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생산된 무기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군사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나 장비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를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이용할 것인가 또는 다변화된 위협에 유연성 있게 대비할 수 있는 다목적 무기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소요제기·개발·획득 단계 전반에 걸쳐 심층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또는 적대세력의 문화에 대한 인식, 언어에 대한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처리체계의 개선과 인간정보를 최대한 활용한 인간 차원의 정보 획득, 적의 주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분야 및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기동성 있는 군대를 재조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계층적 관료주의를 과감히 탈피해서 간결하고 융통성 있는 정보화시대의 진정한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말단 제대까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있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전쟁이란 인간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며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전사의 양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라크에서 스마트한 폭탄보다 스마트한 군인이 더 필요(After smart weapons, smart soldiers)한 것처럼 말이다.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의미로 손자병법 허실편(虛實篇)의 한 구절을 소개하기로 한다.

고기전승불복 이용형어무궁(故其戰勝不復 而應形於無窮)

그러므로 장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거듭하여 사용하지 않고,

무궁무진(無窮無盡)하게 적의 정황(情況)에 따라 대응한다.